

## 정보통신부 성공사례 사이버정보통신 공무원교육원의 운영

최근 지식기반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지식이 중요시되고 있다. 창의적 지식의 생성과 활용은 곧 경쟁사회에서 기업의 성과향상과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이렇게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지식을 창출, 공유, 가공할 줄 아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필요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 일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 기업교육의 주력이던 대규모 집합교육 방식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지식과 인력 개발에 대응하기에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해숙 주사 / 정보통신부

**정**보기술과 네트워크 기술-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개인의 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의 업무도 대부분 정보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활용 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전형적인 학교교육을 통한 지식 습득으로는 지식사회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었고, 수많은 지식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등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에서도 전통적인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최첨단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사이버정보통신 공무원교육원 추진배경과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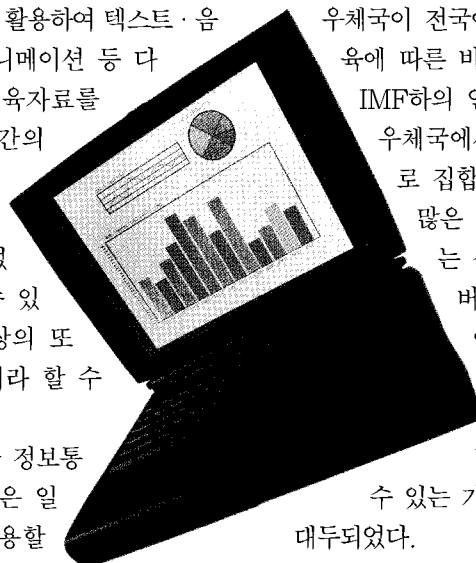
정통부 약 3,000여 개 우체국을 포함한 전 관서의 정보통신공무원들이 인터넷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텍스트·음성·이미지·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교육생과 교수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상의 또 하나의 교육원이라 할 수 있다.

천안에 위치한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은 일일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2인1실, 400실)와 수영장, 볼링장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현대식 공무원교육기관으로 연간 약 1만8천명의 정보통신부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금융 및 우편업무 환경변화로 신상품

에 대한 정보, 수시로 바뀌는 업무 지침 등 재교육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우체국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집합교육에 따른 비용이 매우 크고, 특히 IMF하의 인력 조정 때문에 일선 우체국에서는 업무공백을 이유로 집합교육의 교육생 선발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교육은 지식경영시대에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일선관서의 교육생 선발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교육매체로 대두되었다.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1998년 6월 민간기업 등의 멀티미디어 교육훈련 추진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사이버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9년 5월 천안청사로의 이전을 계기로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원



격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9년 6월부터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5개 교과목(우편·금융·경영·정보활용·외국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전학습 및 자율학습 형태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2000년 8월부터 공무원교육기관으로는 최초로 선택전문교육과정 이수제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 사이버교육 운영 현황

사이버정보통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직무분야를 우편, 금융, 경영, 정보통신, 외국어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전 직원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교과목 단위로 나누어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한 과정이 여러 개의 교과목으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에서는 주어진 대로 교육생이 교육내용을 학습하여야 하나 사이버교육에서는 교육생 스스로 자신이 필요한 교육내용을 선택·조합할 수 있는 모듈식 교육방법을 택하여 시행하였다.

2001년도 11월 현재 5개분야 19개의 교과목을 개발하여 12,000여명이 이수하였으며, 내년에는 집합교육의 선수학습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연계를 통한 교육효과 시너지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 사이버교육의 성공요인

사이버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의 성공요인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업무영역별로 해결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며, 개인별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은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집합교육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사이버교육에서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제공하여 교육생 스스로 필요한 교육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의 업무 스케줄에 맞추어 학습분량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제도적인 뒷받침이다. 사이버교육이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조직의 관점에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생이 외면한다면 한낱 쓸모없는 시스템이 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사용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선택전문교육 이수제로 실시하여 교육점수를 부여하도록 제도화하여 집합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조직구성원의 저항감 극복이다.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할 때 최대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원내 교수나 교직원들에게는 사이버교육이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이버교육이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한 방법으로 집합교육과 상호 보완하여 교육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임을 적극 홍보하였다.

**넷째,** 사이버교육의 단계적인 확대이다.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할 때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인 확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사이버교육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등장과 주위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적인 확대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김혜숙 주사  
정보통신부

### 사이버교육의 발전 방향

사이버교육이 비용·효과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새로운 시작단계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시스템과 교육이 한데 어우러져 객관적인 교육효과 측정이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어려우며, 그에 대한 연구도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사이버정보통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의 사이버교육 운영이었지만 끊임없는 개선과 연구를 통해서 사이버교육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에서 시스템 측면, 콘텐츠 개발 측면과 교육제도 측면에서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ICRA**

문의) hskim@mic.go.kr (041)560-5931

